

장근석, 아시아 왕자... "배용준과 가는 길 다르다"

등록 2011.11.28 08:00:00 | 수정 2016.12.27 23:06:19



【도쿄=뉴시스】박영주 기자 = 장근석(24)은 명실상부한 한류스타다. "예측 불가능한 태도" 덕분이라는 자가진단이다.

장근석은 25일 일본 도쿄 긴자 K플레이스에서 "내 입으로 내 인기비결을 꼽는 건 부끄럽다.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 팬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다음 일을 예상할 수 없어서 내가 궁금하다는 의견이다. 또 한 가지 색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어 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말이 없고 대중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돌발발언도 하고 새디스트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남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감정 그대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없었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위험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움직이기에는 내 자신도 재미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재미있고 솔직하게 하자는 주의다. 또 그런 점이 일본 팬들의 반응을 얻은 것 같다."

장근석은 SBS TV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일본에서 방송되면서 한류스타로 급부상했다. 포스트 배용준(39)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장근석은 "가는 길이 다르다"며 배용준과 비교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1년 전 일본에서 앨범이 나오기 전에 류시원 형과 통화를 했다. 그때 먼저 일본에 진출한 시원이 형이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 하라는 말에 큰 힘이 됐다. 해외 활동은 어렵고 외로운 길이기도 하다. 동료도 없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니 매우 감사했다. 나도 나중에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배용준, 류시원 등 선배들과 나의 길은 다르다. 각자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장근석은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몸에 말썽이 나타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나흘 밤을 새워도 고떡없다. 내가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 자체를 매우 즐기고 있다.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게 재미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는 타입이다"고 밝혔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나 역시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역발상으로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마음이다.

또 "자칭 아시아 프린스라고 떠드는 것이 내 꿈이다. 나가서는 월드 프린스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나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노력도 안 한다고 할까봐 일본어, 중국어 공부 등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근석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가면서 스스로 숨고 싶지 않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연기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콘텐츠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한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 프린스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프린스가 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장근석은 10월 일본 나고야, 오사카, 도쿄로 이어진 아레나 투어를 성공리에 마치고 26일 도쿄돔에서 4만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도쿄돔 공연은 장근석이 기획한 '프린스 월드'를 주제로 장근석의 일상에 콘서트를 접목했다. 힙합가수 주석(33), 버벌진트(31), 탤런트 박신혜(21)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영화배우 김하늘(33)과 함께한 영화 '너는 펫' 1월 일본 개봉을 앞두고 있다. 그룹 '소녀시대'의 윤아(21)와 드라마 '사랑비'를 촬영 중이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